

현장시선



부 동 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위기극복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관광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제주관광은 지난 한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국내는 물론 국제 정세로 인한 변화가 극심했고, 해외 관광지장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내국인의 소비 트렌드와 여행 패턴의 변화,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심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환경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컸고, 그만큼 치열한 한해를 보냈다. 그리고 제주관광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에 불을 지폈다. 다행히 정부와 제주도 차원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제주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 상황은 신속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관광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 유사 사례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통감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는 외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내국인 관광객들이 채우면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봤지만 지금은 도내 각종 대규모 축제, 행사들까지 잇따라 취소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여기에 사실 확인 없이 번지는 가짜 뉴스까지 제주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관광협회는 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관광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광

업계를 비롯한 도내 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조기 지원과 관광진흥기금 상황 및 세금납부 유예, 업계 휴업에 따른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회원 업체에 철저한 방역과 예약 취소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부적절한 상황이나 가짜 뉴스는 일차 단결해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힘든 상황에 주저않는 대신 기회를 찾자는 생각이다. 세계인들의 이동 경로가 점점 넓고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요소는 늘 잠재해 있다는 예이다. 이번 위기를 국가와 지역 간 이동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를 '청정'관리 자체를 상품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방역 등에 있어 제주관광업계의

대응 수준은 모범 답안 이상이었다고 자부한다. 업계가 느끼는 피해 정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텐터가 몇 대가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 관리 직원 몇 명이 일을 잃고, 가장이 일을 하지 못하며 생계도 어려워졌다. 가계부사정이 험겨워지면서 동네 마트 가는 일도 줄어들었다. 결국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제주관광을 살려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기 전에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청정 안전지역' 이미지 홍보를 통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대표 관광지임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제주 도민사회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가짜 뉴스 등에 있어 동조하는 대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 주고 우리 모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사설

새학기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올해 새학기 개학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내 초·중·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 하루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모두 3월 개학 예정은 제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최근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으로 개학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대부분의 학교가 3월 2일부터 학사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예정대로 입학식을 할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초·중·고 일부 학교에선 모든 학생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아닌 교실에서 입학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각 학교에선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교실 입학식 준비 및 방역 강화 등 새학기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제 도내 모든 학교의 개학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선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겁니다. 기복이나 육지의 경우 코로나19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짝 긴장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주는 아직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는게 중요합니다. 이와함께 학부모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된 마음으로 모든 학생이 모일 수

열린마당

성실 납세자,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양 석 진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세금은 국가의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도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어디든 공통인 듯 하다. 대표적으로 명나라 말기를 들 수 있다. 당시에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원액주의(중양 정부가 액수만 정하는 것)로 지역에 할당을 했는데 관리들이 뇌물을 받아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줬고, 만만한 농민들에게 부족분을 추가했다. 이는 반란으로 이어졌고, 명나라가 무너지는 큰 요인이 됐다.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잇따라 부과했다. 1764년 설탕세법, 1765년 인지세법에 이어

1766년에는 타운센트 조세까지 도입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의회에서 결정한 세금은 납부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영국은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차에 대한 세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격분한 주민들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인 동인도회사의 배 2척을 습격해 300여개의 차 상자를 바다에 내던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다.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라 볼 수 있다. 오죽했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얘기 했을까.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잘못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는 계기가 됐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SNS 통한 여론 조사 결과... 진위는?

주최, 조사 시기도 없어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도내 3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돌고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 전국 253개 지역구별 조사 결과를 담은 이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나 주최도 없고 A정당이 도내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우세하다는 내용.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며 "우리 캠프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언급. 고대포기자  
중국 교류도시에 위로 서한  
○...서귀포시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자매·우호도시에 위로서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 양운경 시장은 서한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어려움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를 기원드린다"고 언급. 시 관계자는 "교류도시와는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움을 줬다"며 "특히 2015년 메르스 발생과 사드 배치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때 교류도시 언론매체에서 서귀포시를 방문해 취재하고 돌아가 홍보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취약계층 2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이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교육 및 마스크 등을 배부할 계획. 서부 보건소는 "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외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 이윤형기자

도농기원 제대로 서야 제주농업이 산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시대변화에 맞게 제 역할을 해야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의 미래도 희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주농업이 최근 수입개방, 소비침체, 과잉생산이라는 '삼각파도'에 휩싸여 고전하는 단계를 넘어, 물량의 위기까지 접어드는 마당에 농업기술원 주도의 농업기술 및 정보, 시장대응, 미래농업 선도 등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큼니다. 도농기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겁니다. 농기원 홈페이지는 관리되지 않아 과거 자료에 머물러 있는 사례들이 많았고, 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연을 가거나 강연수당도 챙기는 등의 규정위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7-2019년 기간 종합감사 결과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건(감액·회수 1억4004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농기원과 4개 농기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자료로 상당부분이 2년을 훌쩍 넘도록 현재 자료로 바뀌지 않았고, 각 농기센터 홈페이지내 자체 관리 메뉴의 경우도 관련부서 게시 자료들이 최신자료로 올리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농기원이 농업인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 기능을 유지 못하고, 기관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농기원 직원 17명은 지난 3년간 총 106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외부강연에 나섰는데도 연가 등을 받지 않았고, 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연을 가거나 강연수당도 챙겨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마늘, 당근 등 제주형 작물 품종 개발을 위한 부작정, 공사실제 변경 소홀 및 대가 지급 부적절, 물품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습니다. 농기원은 이제 업무 전반에 걸쳐 철저한 환골탈태의 모습을 농업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 고**  
문영빈(前 고성1리 이장) 아버지 훈장 남평공공 병하(국가유공자·前 성균관유도회 동부지회장·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20일 11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22일(토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3일(일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능향 장례식장 30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문영빈 며느리 김보경  
상 준 한문희  
딸 문영춘 사 위 오성득(故)  
경 춘 강성택  
신 현  
영 실 박철홍  
영 선 최현규  
영 매 현영중  
※ 연락처 : 문영빈 010-2689-2382  
문상준 010-5493-6998

**부 고**  
고경석(前 기가지동자 지점장) 아버지 제주고공 인길(향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20일 11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23일(일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4일(월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1일 - 8빈소 22일, 23일 - 4빈소  
▶장 지: 성산읍 수산리 선영  
부 인 오금옥  
아 들 고경석 며느리 장정은  
경 원 김양희  
경 식 조현숙  
딸 고경애 사 위 신진수  
경 숙 윤재익  
경 미 조상연  
※ 연락처 : 고경석 010-3690-7887  
고경원 010-3697-9980  
김양희 010-6700-1889

**부 고**  
김수훈(前 중앙일보) 아버지 경주 김공 재호(前 제주도의회 의장·오현고 1회·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20일 01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23일(일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4일(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하원리 가족묘지  
부 인 강선옥  
아 들 김수훈 며느리 강정애  
영 흔 이윤희  
딸 김정희 사 위 강상호  
손 자 김성언 외손자 강동훈  
성 준 외손녀 강소희  
성 주 유미  
손 녀 김령아  
※ 연락처 : 김수훈 010-3722-8820  
김영흔 010-4416-7592  
김정희 010-3691-0942  
강정애 010-8026-8565  
강상호 010-8664-0942  
이윤희 010-8654-583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부공 장호(향년 8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21일  
부 인 김여순  
아 들 부상우 며느리 김명미  
상 준 김희정  
딸 부성희 사 위 황영채  
성 민 이내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양홍공 기호(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21일  
아 들 홍경범 며느리 김효영  
딸 홍미경 사 위 문성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양고창범(1962. 11. 24. 생)  
•최후주소 : 제주시 연동13길 3, 804호(연동, 진선영터분) 상거지는 2018년 10월 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2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020-나1000으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 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회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연동13길 3-1, 502호 (오라비들, 헤르메스2차아파트)  
2020년 2월 2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 승 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문 성과 집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품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